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8.19(금) ~ 2022.8.28(목)

제공일시 2022 09 0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8.19(금) ~ 2022.8.28(목)

제공일시 2022 09 0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배터리 소재 재활용' 의무화..韓 R&D·인력양성 시급

- 코트라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올해 4월 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를 통과한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안'을 연내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이 법안은 유럽 내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배터리에 대해 2024년 7월부터 탄소발자국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원료부터 생산, 소비, 재활용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탄소중립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2027년 7월부터는 일정 수준 이하로 탄소발자국 상한선을 정해 이를 넘으면 EU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며 2030년 기준 재활용 비중을 정하여 코발트 12%, 리튬 4%, 니켈 4% 등으로 두고, 이후 2035년부터는 비중을 더 강화해 코발트 20%, 리튬 10%, 니켈 12%로 높일 계획임

(이데일리, 2022.08.22) 박민 기자

2. "EU, '배터리 여권' 도입... 디지털 이력 추적 준비해야"

- 24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 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도 제품의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음
- 유럽연합(EU)은 2026년 배터리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역내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여권(Passport)'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 배터리 여권제도 대응에 독일, 중국, 일본이 먼저 나섰는데, 독일은 BMW, 유미코어, 바스프 등 11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배터리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배터리 패스' 프로젝트 개발에 착수했고, 중국은 정부 주도로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이미 구축했음
- 일본은 지난 4월 배터리 공급망 협의회가 플랫폼 구축 제안서를 공개한 바 있음

(뉴스스, 2022.08.24) 박정규 기자

3. 프랑스, 유럽 최초 '화석연료 광고' 금지

- 프랑스가 화석연료 업체 광고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프랑스 정부는 22일(현지시간)부터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 광고를 금지하고, 내년 6월부터는 천연가스 광고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를 어기는 업체는 벌금 최소 2만유로(약 2600만원)부터 최대 10만유로(약 1억 3000만원)를 부과해야 하며, 재범 시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함
- 다만 금융 투자와 통신 관련 협찬 및 재생에너지 또는 바이오가스 함량이 50% 이상인 연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준에 부합하는 연료 등에 대해서는 광고가 허용됨

(뉴스핑크, 2022.08.25) 남예진 기자

1. 그린워싱 탐정, 페트병 재활용으로 'UN 인증'? ESG은 이렇게 부풀려졌다

- 한국일보는 CJ대한통운에서 '유엔 우수사례 국제친환경인증인 GRP에서 물류기업 최초로 최우수 등급 받았다'는 내용을 그린워싱이라고 검증했음 (한국일보, 2022.08.24) 신혜정 기자
- 이 인증을 수여한 단체 이름은 'UN SDGs협회'로, 민간단체이고, 서울에 사무실을 둔 엔지오일뿐 유엔산하기구가 아닌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속한 전세계 6000개 단체가 협의지위를 갖고 있는 곳중 하나임
- 유엔의 공식기구 중 하나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측에서도 "특정분야 협의지위라는 건 특정 이슈를 다루는 NGO라는 뜻"을 밝혔음
- 하지만 이러한 민간의 평가와 인증이 기업의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확산되면서, 마치 유엔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재확산됨 관련한 주의가 필요해 보임

2. '뉴 노멀' 자리잡은 재택근무... 전기-통신비 등 업무비용 규정 마련해야

- 재택근무가 산업계에서 뉴노멀로 자리잡으면서, 관련규정 재정비 지적이 나오고 있음 (동아일보, 2022.08.23) 주애진 기자
- 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사가 재택근무자에게 노트북 등 PC를 제공하고 있지만, 재택근무가 보편화할수록 제반비용 요구 등 기업과 근로자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회입법조사처의 '재택근무제에 관한 해외 입법,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2020, 2021년 재택근로와 원격근로 관련 법제화가 이뤄졌으며, 원격근무 등 모바일 노동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포함됐음
- 스페인은 2020년 9월 '원격근로에 관한 긴급 입법'이 제정돼 재택근무를 할 때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 그밖의 비용에 대해 회사측이 부담할 금액 등을 지정하도록 규정했음
- 국내서도 고용노동부가 2020년 9월 재택근무 종합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전기통신비의 경우 업무와 사적 사용분을 구분하기 어려워 재택근무 수당 지급 고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3. 美 텍사스, 연기금 투자서 블랙록 등 10개 금융사 배제

- 미국 텍사스 주정부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유럽 금융회사 9곳을 화석연료 산업을 차별 한다는 이유로 주당국의 연기금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선언했음 (이데일리, 2022.08.25) 방성훈 기자
-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글렌 헤거 텍사스주 감사관은 텍사스 교사퇴직연금 등 주정부 산하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ESG 보이콧' 금융회사 주식을 매각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음
- 매각 대상은 블랙록, UBS, BNP파리바, 크레디트스위스, 단스케은행, 노르디아은행, 슈뢰더, 스벤스 카은행 등 ESG 보이콧을 선언한 10개 금융회사이며 348개의 뮤추얼 펀드도 매각 대상임
-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에너지 차별 철폐법'에 근거한 조치임 제재 대상 금융회사들은 즉각 반발 했으며 FT는 "텍사스가 공화당 주도로 진행되는 '반(反)ESG' 캠페인을 더욱 확장시켰다"고 평가했음

1. [제20회 서울국제A&D컨퍼런스]"전자폐기물·플라스틱 재활용 성장 두드러질 것"

- 전자폐기물(E-waste), 플라스틱 재활용 등에서 기존 다운스트림 중심이 아니라, 업스트림(후방산업) 사업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왔음
- 임성주 SK에코플랜트 담당임원은 컨퍼런스에서 “국가간 폐기물 수출입 금지 조치와 순환경제 중요성이 높아져서”라고 그 이유를 답했음
- SK에코플랜트는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전기전자 폐기물 선도기업인 테스(TESS)를 인수했는데, ITAD(IT자산처분서비스)를 통해 IT자산의 정보 제거 및 재활용 등을 핵심으로 하여 21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캐시카우'(수익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에 더해 싱가포르에 있는 IT기기용 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기반으로, SK온을 포함해 SK그룹 내에서 배터리 재활용 밸류체인을 만들 예정이며 노르웨이의 RVM(폐기물회수자동화기기) 제조업체인 '툼라(Tomra)'와도 수거 사업에 협력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도 뛰어 들었음

(파이낸셜뉴스, 2022.08.24) 김동찬 기자

2. 탄소중립 일자리 위기 54만명... “공정전환 펀드 필요해”

- 저탄소 경제 전환이 확산됨에 따라, 석탄발전·내연차 등 고탄소 업종 근로자와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민간·공공차원 펀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음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에서,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다고 내다봤음
- 이에 따라,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음
- SGI는 공정전환 펀드 신설,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했으며 특히 공공·민간자금을 혼합해 보증, 대출, 지분투자 등을 제공하는 ‘공정전환 펀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임팩트, 2022.08.22) 박민석 기자

(이코노미스트, 2022.08.22) 이병희 기자

(노컷뉴스, 2022.08.22) 조근호 기자

3. 세계 최대 규모의 공기중 직접포집(DAC) 플랜트 건설계획

- 글로벌 에너지 기업 옥시덴탈과 탄소 포집, 이용 및 격리 플랫폼인 1포인트파이브(1PointFive)는 텍사스 퍼미안분지에 대규모 DAC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 이는 연간 최대 6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포획할 수 있는 용량이며, 100만톤까지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시설로, 현존하는 세계 최대 DAC 프로젝트라고 함
- 부지준비와 도로공사를 포함한 1단계 공사는 올해말 시작되며, 공사는 2024년 시작될 예정이고 앞으로 2035년까지 전 세계에 70개 DAC 설비를 배치하겠다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 1포인트파이브는 기후솔루션 회사인 카본엔지니어링과 제휴, DAC기술을 규모에 맞게 상용화하고,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EPC) 서비스에 대해서는 월리(Worley)와 협의, 연말까지 최종합의할 방침임

(ESGToday, 2022.08.25) Emanuela Kerencheva 기자

4. “차세대 ‘리튬황 배터리’, 2026년까지 항공분야서 가장 빨리 성장”

- 리튬황 배터리를 활용하는 항공 분야가 오는 2026년까지 고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 22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은 최근 ‘전 세계 리튬황 배터리 시장 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세계 리튬황 배터리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72.04%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함
- 리튬황 배터리는 전기항공기의 비행거리를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경량 배터리이며, 항공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뉴시스, 2022.08.23) 최희정 기자

1. 미국 친환경 포장재,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코트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함
- 특히 포장재, 농업 분야, 소비재, 자동차업계, 소재, 건축 및 건설 업계에서 꾸준한 수요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함
- 많은 기업이 친환경 소재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갖추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빠르게 대응하는 만큼,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무궁무진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08.24) 정연진 디트로이트무역관

2. 미국 ‘셀프’ 스마트폰 수리 길 열려… 국내 도입 가능성은?

- 미국에선 앞으로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 때, 서비스센터에 맡기지 않고 소비자가 부품을 구입해 직접 수리할 수 있게 됨
- 이는 ‘소비자 자체 수리 권리’를 보장하라는 행정명령 때문으로, 애플은 지난 4월부터, 삼성은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음
- 하지만 국내 도입 계획은 아직 없으며, 지난해 국회에 관련 법이 제출됐는데, 실효성과 안전 문제 등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SBS뉴스 2022.08.23) 정성진 기자

3. 바이든도 눈독 들인 ‘수소’…환경·안보·경제 잡는 ‘약속 어음’ [리셋 에너지 안보]

- 수소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국가가 점점 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 등이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중·일이 수소에 가장 관심이 많음
- 딜로이트는 수소경제가 폭발적으로 부가가치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이 2040년부터일 것으로 내다봤음
- 또, “한국은 수소 생산(액화)에서 운송까지 독자적 역량 증진을 위한 사업 기회를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음

(국민일보, 2022.08.22) 신준섭 기자

4. ‘콩고기’ 등 식물성 고기는 핫한데 식물성 해산물의 미래는 어떨까? 식물성 재료로 만든 참치를 시식해 봤다

- 식물성 고기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대체 해산물에도 주목이 쏠리고 있음
- 미국의 식물성 해산물 시장은 2021년 매출이 전년 대비 14% 성장했고, 2년 전이었던 2019년에 비하면 42%나 성장했음
- 일본은 ‘넥스트미츠’는 100% 식물성으로 대두를 주 원료로 한 Next 참치를 발매했고, ‘아즈마르세’는 곤약가루를 원료로 한 대체 연어, 참치, 오징어를 발매했음
- 워싱턴포스트는 식물성 해산물을 ‘2022년 6개의 주목할 푸드 트렌드로 뽑았음

(허핑턴포스트, 2022.08.23) Yuko Funazaki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8.19(금) ~ 2022.8.28(목)

제공일시 2022 09 0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전기자동차 충전소까지.. 전기차 보급 가속화되지만 리튬 자원 부족 계속 예상돼

- 스마트폰처럼 전기차도 도로를 달리면서 충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예정임. 미국 최초의 전기차용 무선 도로 내 충전 시스템 시험 운행이 곧 시작된다고 지속가능미디어 그린비즈가 최근 밝힘
- 일렉트리온(Electreon), 와이트리시티(WiTricity) 등과 같은 회사는 무선 도로 충전 기능이 있는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으며, 목적지에서 한꺼번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따라 차량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함
- 상황에 따라 충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구독료를 지불하거나 비용을 고속도로 톨게이트비용에 통합할 예정임. 이러한 무선 충전 시스템은 대부분 플러그로 충전하는 충전기를 설치하는 전기차 인프라의 구축에서 큰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임
- 디트로이트시가 있는 미시간주 교통부는 일렉트리온과 1마일(약1.6km)의 노상 전기 자동차 충전 설비를 190만달러(약 25억원)에 계약함. 와이트리시티는 무선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자기공명 기술을 내세워 상용화 작업을 벌이고 있음. 자기공명 무선 충전 기술은 지난 2007년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연구팀에 의해 첫 구현된 방식임. 당시 연구진은 2.4m 떨어진 60W 전구에 불을 밝히는 데 성공함
- 무선충전회사 와이트리시티의 CEO인 알렉스 그루젠 CEO는 "와이트리시티 할로(WiTricity Halo)"라는 무선 충전 패드를 출시할 예정임. 무선 충전 패드는 운전자가 자신의 차고에 쓰기 위해 구입할 수 있음. 무선 충전 패드는 오늘날의 플러그인(plug-in) 레벨 2 충전기와 거의 같은 속도로 전력을 공급함. 그루젠 부사장은 무선 전기차 충전이 2020년대 말까지 어디에나 보급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모든 종류의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원을 충전지점에 공급함. 일단 충전이 필요한 지점에 전원이 공급되도록 공사가 끝나면 일반적인 충전방식인 플러그인 하드웨어는 무선 방식으로 쉽게 교환할 수 있음
-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 가운데 전기차의 생산 증가는 향후 12년간 리튬 수요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하 BCG)은 2035년까지 배터리 원료인 리튬이 부족할 것이며, 전 세계에서 판매된 모든 자동차, 밴 및 기타 경차 중 59%가 순수한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일 것이라고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서 24일(현지시각) 보도함
- BCG의 새로운 예측에 따르면, 리튬 가격은 지난 2년 동안 10배 이상 급등했지만 2025년경까지 예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 있으며 재활용이 충분히 본격화되면 잠재적으로는 2030년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렇게 리튬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하나는 전 세계에서 채굴되는 리튬의 양이 수요에 크게 못미치고, 또 하나는 리튬을 리튬 이온 배터리의 화학물질로 정제하는 능력을 극소수의 국가만 갖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지정학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자연 재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이 이들 국가에 발생하면 전체 배터리 공급망이 곤란해질 수 있음
-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의 물류도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BCG는 평가함. 무게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전기차 공장 근처에서 많이 제조되고 있는데, 엄청난 양의 광석이나 탄산리튬을 정제하기 위해 중국으로 운송한 다음 다시 배터리 셀과 팩을 만드는 국가로 운송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중요 재료의 글로벌 소스를 다양화하면 공급망이 더 탄력적으로 될 수 있고 운송비용과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BCG는 내다봄

(임팩트는, 2022.08.29) 홍명표 기자

(임팩트는, 2022.08.26) 홍명표 기자

(임팩트는, 2022.08.24) 송준호 기자

- 다만 이러한 추측은 잠재적인 것이고 모든 신규 리튬 채굴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재활용이 크게 확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30년에 처음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약 4% 부족할 것으로 예상함. 그 이후에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예상됨. 부족분은 2035년에는 24%로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함
-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설치된 그리드 규모의 에너지 저장 배터리의 90%가 리튬 이온이었음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으며, 리튬 이온은 10년 이상 가장 인기 있는 에너지 저장 기술로 남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BCG보고서는 중국과 같은 리튬 생산국들이 재활용 분야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봄. 이 보고서는 이 초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금융 부문, 자동차 회사, 광산 회사 및 폐기물 관리 전문가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음
- 보고서는 "앞으로 리튬 제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는 것은 많은 어려운 도전들을 야기한다"며,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싸움이 계속 진행되려면 이러한 도전들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힘
- 한편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면서 독일과 캐나다 사이의 에너지 외교가 강화됨.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는 23일(현지시각)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캐나다에서 만나 그린수소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수소 동맹'을 체결함
- 솔츠 총리가 캐나다 순방길에 나선 것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캐나다에서 LNG 수입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는 독일에 LNG보다는 수소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독일과 캐나다의 민간 기업들도 에너지 관련 거래에 나서기 시작함. 독일의 에너지 회사 유니퍼(Uniper)는 그린 암모니아를 수입하고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 접근하기 시작함